

‘기뻐하여라, 은총을 가득 받은 이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성녀 줄리 수녀원, 부세에사, 우간다



오늘은 좋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성모 영보 축일을 기념하며 우리 어머니이자, 자매, 친구이며 주보이신 분과 함께 기도하며 걸었던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기도와 축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년의 정신으로, 감사와 희망의 순례자로서, 그리고 성모님의 정신으로 우리 삶을 숙고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이 들으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성모님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며,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항상 준비를 갖추라는 초대였습니다.

다른 문화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문화적 가치, 신념, 관습이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과 이러한 것이 문화 내외의 상호작용과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아시아 음식을 준비했고, 음식을 나누고 즐기며 문화적 음식이 단순히 영양 공급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 전통에는 우리 방갈로르의 성모 방문 관구 수녀들이 공유한 재료, 요리법과 식사 예절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문화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통 음식은 종종 가족을 통해 대대로 전해지며, 과거와의 실질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강화합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소속감을 키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방갈로르 관구의 수녀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으며, 그들의 현존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문화적 식사는 축하 행사, 모임, 중요한 인생 사건의 중심이 되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체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메리 필리스 수녀, SND